발행처 : 전라남도 공공디자인과 발행일 : 2012년 3월 30일 연락처 : 061. 286. 5324 FAX: 061. 286. 4771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디자인 전남

2012년 3월호

전남 공공디자인 소식
전라남도 좋은경관만들기팀 2012년 운영회의 개최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진입부 경관디자인 완료

공공디자인 사례분석_버스승강장
전라남도 공공시설물 매뉴얼
서울시 버스승강장 매뉴얼
유럽의 버스승강장

전남 시군 및 타시도 공공디자인 소식

이달의 디자인 도서, 디자인 용어



표지 이미지 : 완도군 청산도

"우리도의 경관 및 디자인 품격 향상"

전라남도『좋은경관만들기』팀 2012년 운영회의 개최

전라남도에서는 지난 3월 19일, 더욱 활성화된 팀운영을 위해『좋은경관만들기』팀 2012년 운영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도는 2010년 11월부터 경관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 · 개선하여 우리 도의 품격 향상으로 국제행사 등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도 공직자들로 구성된『좋은경관만들기』팀을 운영 중에 있다. 지난 2011년 활동결과 훼손경관 정비 및 개선 86건, 경관개선 아이디어 30건, 우수사례 9건 등을 점검하여 우리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 ·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번에 개최한 회의에서는 2011년도 점검활동 결과 보고 및 2012년 점검방법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토의한 결과 팀확대 운영방안 모색, 경관관련 아이디어 제시, 현장활동 시 건의사항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시군에서는 자체 점검팀을 구성 · 운영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 지역의 첫 인상이 되는 시군 경계관문 주변 중점점검, 팀에서 제시했던 아이디어 및 경관개선 전후사진등을 정리하여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도는 올해에 점검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고,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우리도 품격향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여수시 덕충동 일원 방치된 빈땅에 화단조성 제안 (2011년 활동시 개선 아이디어 중)



현 상황



개선방향 제안



"친환경, 창의적 디자인을 전라남도에 도입 "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진입부경관 디자인 완료

전라남도에서는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노후화되고 상징성 없는 정문, 경비실, 주진입로 안내판으로 인해 연구소를 찾기 어려운 방문객의 편의도모 및 연구소 홍보에 기여코자 산림자원연구원 진입로에 대한 경관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산림자원연구소의 이미지에 맞는 친환경적인 디자인, 산림자원연구소의 상징적 의미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디자인, 정보전달의 기능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로운 심미성을 고려한 디자인, 규격 및 색상은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원칙게 준하는 디자인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상징조형물, 경비실 외벽 및 진입로 환경, 주 진입로 방향 및 위치 안내판 등 세가지를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상징조형물은 주 출입구 진입로 주변에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편의시설의 기능을 갖춘 환경조형물을 설치하여 이용객이 방문시 쉼의 여유를 갖을 수 있게 하였으며 경비실 외부 및 진입로 환경디자인은 규모 있는 수목 및 식자재를 운반하는 진입로이므로 아치 또는 게이트 형태의 디자인은 피하였으며, 경비실은 노후화된 미관 보완 및 주변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에 중점을 주었고 주진입로 방향, 위치 안내판 디자인은 산림자원연구소의 네이밍, 내부 시설물들과 통일감을 이루도록 친환경재료를 적극 활용하여 디자인하였다.



방문객이 쉴 수 있는 한옥 정자



친환경재료를 활용한 경비실 외부 및 진입로 환경 디자인

전라남도 가로시설물 가이드라인

버스승강장 (Bus Stop)



도심권 버스 승강장의 표준 디자인 시뮬레이션

전라남도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사용자를 배려한 기능적 · 심미적 디자인의 시설물 개발을 통해 정체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작 · 배부하였다. 이용자 중심의 기능적 시설물 디자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화로운 디자인, 환경을 배려한 지속가능한 디자인 이렇게 세 가지 개발원칙을 갖고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필요한 시설물들의 표준디자인을 제시하였다.

권역별 표준디자인

버스승강장은 도심권, 전원 · 산악권, 해안권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특성을 살려 디자인 되었다. 도심권은 개방감 있는 재료와 구조의 적용을 통해 가로경관을 시각적으로 쾌적하게 유지하며 도시에 어울리는 심플한 라인으로 세련된 이미지를 살리고 있으며, 특히 상부는 태양열판이 설치되어 주간에 축적된 전기가 야간에 사용될 수 있게 하였다.

전원 · 산악권은 주변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한 온열감이 높고 단순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A타입, B타입 두가지로 개발되었다. A타입은 상부에 블라인드를 설치하여 자외선을 차단하고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 목재의 적용비율을 높여 자연과 조화롭게 디자인되었고, B타입 역시 A타입과 같은 디자인에 배차시간이 긴 지역 또는 기후적 요인으로 바람이 강한 지역에 바람을 막기에 용이한 구조로 디자인되었다.

해안권도 두가지 타입으로 개발되었는데 A타입은 주변경관과의 조망을 고려한 개방감 높은 재료적용과 해안권의 이미지를 살린 상부 디자인으로 쾌적함과 미려함을 더했으며, B타입은 전원 · 산악권과 같이 A타입에 바람을 막기에 용이한 구조로 디자인 되었다.



도심권 표준디자인 야간 시뮬레이션



산악 · 농촌권 표준디자인 시뮬레이션



해안권 표준디자인 시뮬레이션

시군의 버스승강장



여수시 도심지역 버스승강장



담양군 가사문학권의 버스승강장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앞 버스승강장

전라남도 가로시설물 가이드라인 외에 각 시군에서도 지역에 맞는 버스승강장 디자인을 개발하여 설치하고 있다. 여수시는 2012년 엑스포를 대비하여 심플한 라인과 바다의 느낌을 살린 색채를 사용하여 시설물을 디자인하고 전면에 엑스포 광고 포스터를 삽입하여 설치하였다. 담양군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가사문학권의 경우 한옥기와와 목재의 특성을 살린 디자인의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의 버스정류장은 흑두루미를 모티브로 한 옆 라인과 상행 및 하행 버스이용객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게 양쪽에 의자를 설치하며 심미성과 기능성을 살렸다. 불과 몇년 전에는 각 시군의 특산물을 모티브로 한 과한 디자인이 많았으나, 근래에는 조화성과 기능성을 살린 디자인의 버스승강장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서울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버스승강장 (Bus St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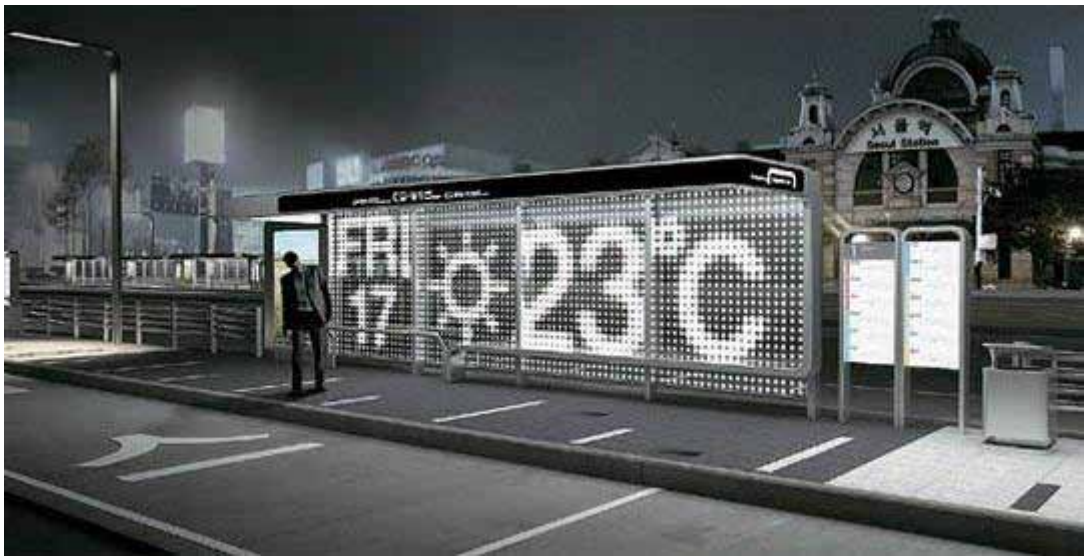
서울시 버스승차대 매뉴얼 일자형 버스승차대



서울시 버스승차대 매뉴얼 소형승차대

서울시에서는 “비우는, 통합하는, 더불어 디자인하는, 지속가능한 ” 이라는 네가지 전략을 가지고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등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버스승강장은 보도폭에 따라 ㄱ자형 승차대, 일자형 승차대, 소형 승차대 3가지로 개발되어 있다.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에게는 의자, 노선표, 버스시간 알림 등의 편의제공을 하고 버스기사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며 설치 및 유지관리가 간단하고 부식에 강한 재료로 디자인되었다. 미관, 구조, 기능적인 검토사항을 바탕으로 주변경관과의 조화, 내구성 고려,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가 편리한 기능을 반영하였다.

서울시의 특색있는 버스승강장



서울역 종합환승센터 미디어 승차대

서울시에서는 공공시설물 매뉴얼의 버스승강장 외에 특색 있는 버스 승강장을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역 앞 버스승강장이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역 주변의 상습 정체 해소와 빠른 환승을 위해 여러 환승시설을 통합해 상호연계성을 갖도록 하는 종합환승센터를 조성하였다. 이곳에는 첨단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12개의 미디어 승차대가 세워졌다. 현대카드의 의뢰로 디자이너 채정우가 설계한 이 승차대들은 지붕을 포함한 모든 면이 투명유리로 되어 있어 낮에는 주변 경관이 투시되어 보인다. 유리 안에 전류가 흐르는 얇고 투명한 막이 있고 이 막에 발광다이오드(LED)가 결합되어 있어 야간에는 수많은 작은 불빛이 빛나는 영상스크린으로 변한다. 중앙관제실을 통해 뉴스 · 날씨 등 일상의 공공정보는 물론 미디어 아티스트의 작품 등 다양한 콘텐츠까지 유리면에 띄워 국가행사나 도시축제 시기에 이벤트 요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승차대에 장착된 센서가 사람의 동작, 차량의 움직임, 기상 상태 등에 반응해 도시와 시민, 시민과 승차대 간의 상호소통을 지원한다는 점이며. 이 버스 승강장은 서울시와 민간기업, 전문디자이너 간의 긴밀한 협의와 시민들의 참여로 완성된 참여디자인의 좋은 사례이다.

또 다른 특색 있는 버스정류장은 남산 아트버스쉘터이다. 남산도서관에서 후암약수터, 보성여자중 · 고교 입구, 하얏트호텔 등 5곳에 설치된 남산 소월길 아트버스쉘터는 자연과 도시의 조화를 엿볼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적용하였으며, 경쟁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손으로 쓴 정류장 명판을 제작하여 더욱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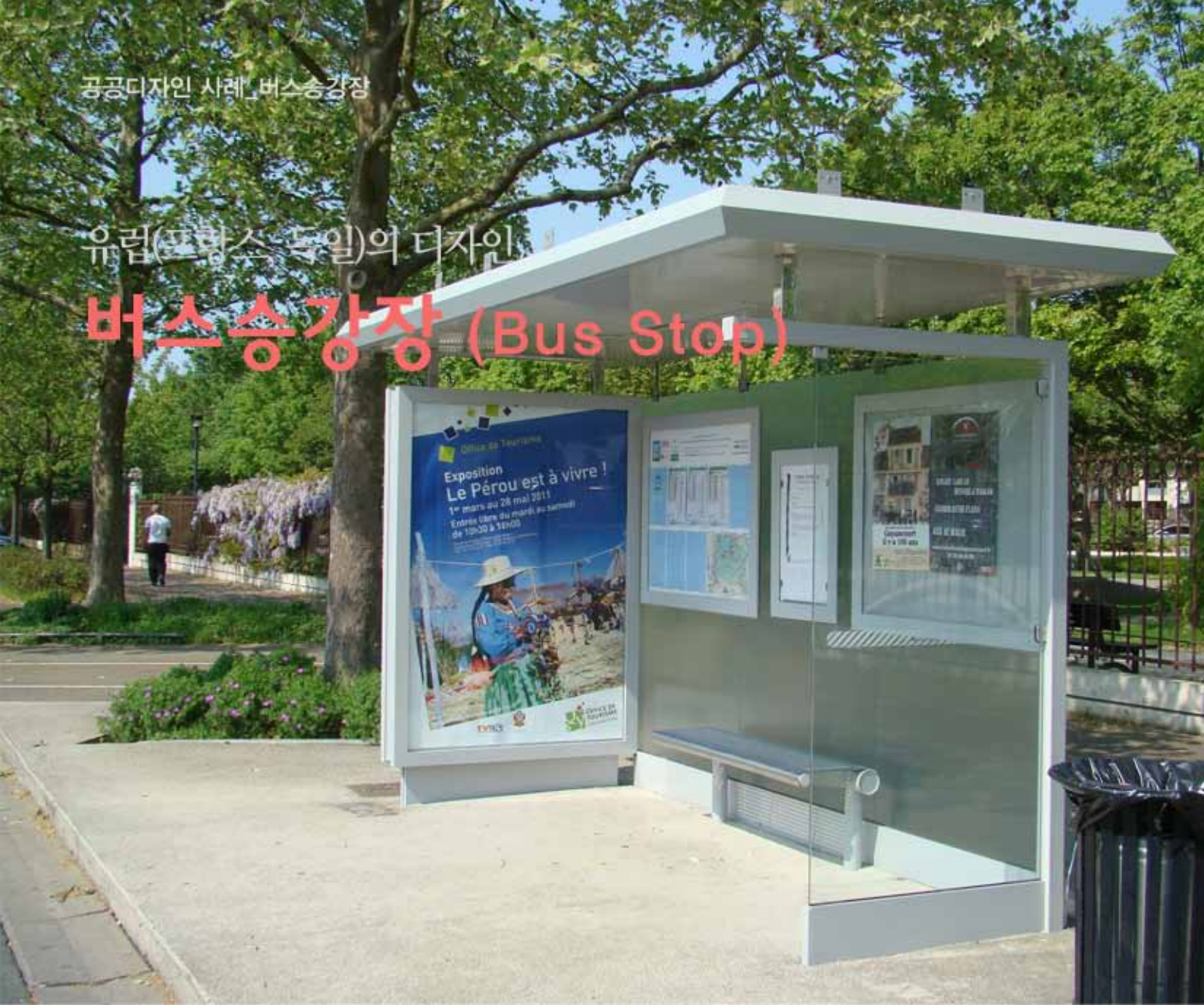




남산 소월길 아트버스쉘터

유럽(프랑스, 독일)의 디자인

버스승강장 (Bus Stop)



프랑스, 독일 지역의 모듈화된 버스승강장

프랑스와 독일의 버스승강장은 시설물의 구성 요소들을 모듈화시켜 크기의 변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지역특성, 이용자 수에 따라 규모화 형태가 쉽게 변형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버스승강장은 유리를 사용하여 통일성이 있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시설물 이용자들이 버스도착 상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하였다.





유럽 버스승강장 이모저모



프랑스와 독일의 버스승강장은 광고대행사가 도시와 어울리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광고판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시설물 설치 예산이 절감되고 광고회사에서는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위. 광고사에서 설치하여 광고판으로 활용되고 있는 버스 정류장



우. 유럽 최초로 라투아니아에 설치된 터치스크린 버스정류장

동유럽 라투아니아에는 2011년에 유럽 최초로 터치스크린을 버스승강장에 도입하였다. 지도, 도로와 정류장, 버스번호, 시간표 등이 다섯 개 언어(리투아니아어, 영어, 러시아어, 폴란드어, 독일어)로 된 대중교통 노선과 시각표를 쉽게 알 수 있게 표기하여 자국민 외에 관광객들 또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터치스크린을 버스정류장에 도입한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많지만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이 한글, 영어 두가지 언어로 되어 좀 더 다양한 언어를 도입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동반된다면 더 많은 이용자들의 사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순천시, 자투리땅 녹화공간 선정



순천시 도심 자투리땅이 새로운 녹지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순천시에 따르면 도심 속의 녹색 공간 조성을 위한 아름다운 한 평 가꾸기 사업 공모를 통해 18개소에 대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마을만들기사업 차원에서 추진하는 아름다운 한평 가꾸기 사업 은 숨어 있는 자투리땅을 찾아내 주민들 스스로 아름답게 가꿔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과 연계해 원도심을 관통하는 중앙로를 중심으로 대상지로 삼았으며, 공예 · 서양화 · 인테리어 · 공공디자인 등 전문가 4팀과 비영리단체나 마을차원의 일반시민 14개 팀이 각각 선정됐다.

한 평 가꾸기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 등 민간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현재 조성 중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과 도심 곳곳의 자투리 땅을 연결하게 된다. 특히, 각 사업에 대한 관리와 컨설팅, 디자인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건축, 조경 등 전문가팀을 구성해 주민들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커뮤니티 정원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향후 3년간 추진된다.

영광군, 공직자 대상 디자인 마인드 교육 실시



전라남도 영광군은 군 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창의적인 공공디자인 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디자인 마인드와 창의적 디자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된 이번 교육은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사업 추진 시 수준 높은 디자인적 요소를 반영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공공디자인은 심미적 가치 뿐 만 아니라 편리성, 안정성, 공공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며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향후 군에서 추진하는 건축, 조경, 가로환경 등의 제반 분야의 디자인을 설계 · 관리하여 영광군을 품격 있는 명품도시로 재창조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디자인 전문 강사로 초빙된 김현중 이화여자대 디자인학부 교수는 천년의 빛 영광 품격 있는 도시디자인이라는 주제로 국내 · 외의 다양한 공공디자인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디자인의 개념과 함께 지역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방향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경기도, 볼라드 기능·디자인 업그레이드



경기도는 크기, 간격, 재질 등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볼라드 제거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볼라드는 자동차의 인도 진입과 불법 주 · 정차를 막기 위해 설치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으로 최근 무분별한 설치로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어왔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높이 80-100cm, 직경 10-20cm에 1.5m 간격으로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볼라드 전면 0.3m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도내 볼라드의 약 19%가 기준에 맞지 않는 볼라드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한편 이와 연계하여 각 시 · 군과 협력하여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볼라드는 물론 보행에 장애가 되고 있는 보도용 펜스, 분전함 등도 정비할 방침이다.

도는 경기도 디자인총괄추진단과 도로계획과 주관아래 시 · 군별 중점정비지역을 선정, 상반기 중에 집중 정비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우수정비 시 · 군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울산시 디자인 거리 본격 조성



울산의 역사와 전통문화, 정체성을 테마로 한 디자인 거리가 본격 조성된다. 이 구간은 약 400년 전 만들어진 울산읍성과 읍성객사 터 등 역사문화 유적과 조선시대 관청인 동헌이 위치한 지역이다.

지난해 4월 중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조성사업은 지역 대학의 건축학과 및 디자인 전공교수, 상인 및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울산의 500년 전통거리인 울산초교~울산교 구간을 대상지로 선정했고, 이번에 총사업비 25억원으로 거리 조성에 나서게 됐다. 울산 중구청 기획감사실 공보팀 김도형 담당은 "디자인 거리는 울산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테마로 이야기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복합된 테마형으로 디자인된다" 며 "이를 위해 울산시에서는 전 구간에 도로포장과 조경시설, 울산초교~시계탑 구간의 전선지중화 사업, 거리환경 개선이 추진될 것" 이라고 말했다. 디자인 거리는 올해 12월 말 준공 예정이다.

이달의 디자인 도서

세계의 도시디자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저
보성각 출판
2010. 2. 20 발행



도시는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으로,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도시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이들의 꿈이다. 이 책은 도시차원의 도시디자인, 지구차원의 도시만들기, 블록차운의 도시재생, 가로차원의 도시 가꾸기 등 총 4개 파트와 1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전체 사례는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50주년을 기념하여 약 50개의 국내외 사례를 망라하였다.

이달의 경관 및 디자인 용어

경관기본계획

지역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자연, 역사, 문화 등의 경관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창조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경관비전 및 청사진으로서 실제 모든 건축 등 개발 행위에 있어서 지침서 역할을 한다.

경관기본지침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그 주체가 되는 것은 주택, 가로시설 등 일상 생활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건축물 · 공작물 등이다. 이것이 각 도시의 역사경관, 자연경관 혹은 도로, 하천 등의 공공시설과 조화를 이루어 매력적인 정주환경이 형성된다. 경관기본지침은 공통사항 외에 각각 지역 분류별로 경관형성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준은 각 지자체별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